

제23-32호 주간 집단에너지 동향

Weekly News Update on CHP/DHC

2023.8.16. (수) 2023. 8. 14.(월) 17:00 기준



1. 국내 주요 단신

▶ 집단에너지, 폭염 속 냉방공급으로 가치 높여(이투뉴스, 2023.8.8.)¹⁾

▶ 한남, 하절기 지역냉방 공급하는 열병합발전소 및 공급시설 점검

- 지난 8일, 한남은 지속적인 역대급 폭염과 태풍 '카눈'에 대비하여 하절기 전력과 냉방의 안정적 공급 및 시설물 안전 관리 방안을 논의함.
- 현장 중심 안전 점검을 위한 순회점검, 긴급복구체계 정비 등을 통해 에너지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
- 지난 장마기간에 빗물받이 및 배수 장애요소 점검 및 정비, 침수우려지역 예찰활동 강화 등을 통해 안정적인 전력 및 냉방을 공급한 바 있어 하절기 또한 대비를 철저히 하고자 함.

▶ 한남, 2개 분기 연속 적자폭 개선...올 하반기 흑자전환 기대(아시아투데이, 2023.8.10.)²⁾

▶ 2분기 영업손실 465억원...적자폭 전년비 58% 축소

- 지난 10일, 한남의 연결재무제표 기준 올해 2분기 영업손실은 465억원으로 잠정집계 공시되어 전년 동기 대비 적자폭이 크게 감소(58.0%)함.
- 매출은 6,48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.0% 증가하였으며 당기순손실은 52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1.0% 적자폭이 감소함.
- 이는 올 초부터 LNG 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띄면서 연료비와 판매단가의 격차가 줄었으며 올해 6월 기준 열요금도 전년 동기 대비 35% 상승하면서 판매실적이 개선되었기 때문임.
- 한남은 올해 4분기 흑자 전환을 목표로 비필수 자산매각(출자사 지분 및 유휴 부동산), 전사적 경비 절감 노력 등 경영효율화 전략을 시행할 계획임.

1) 이투뉴스

2) 아시아투데이

■ 철강·화학단지에도 SMR…"원자력 열 에너지 공급"(한국경제, 2023.8.13.)³⁾

▶ 다양한 활용 범위 가진 고온가스로 SMR 연구·개발 활발

- 최근 현대엔지니어링과 두산에너지빌리티, DL이앤씨 등 철강·석유화학 산업계에서 고온가스로 SMR(소형모듈원전) 해외 실증 사업에 참여하며 SMR을 활용한 공정열 조달 방안을 모색함.
- 고온가스로 SMR은 냉각재로 헬륨 기체를 사용해 700~950℃ 고온열을 발생시키는 차세대 SMR로 지역난방, 해수담수화 외 석유 정제 등 활용 범위가 넓으며 열원 투입 비용 절감이 가능함.
- 지난 11일, 한국원자력연구원과 경상북도는 현대엔지니어링 등 11개 기업과 '원자력 열 이용 협의체'를 구성하여 원자력 공정열 생산 기술 개발과 사업화 역량을 강화해나갈 계획임.

■ [기고] 온실가스 감축 위해 '저온폐열 회수' 필요한 이유(에너지신문, 2023.8.8.)⁴⁾

▶ 높은 기술성숙도·활용도를 가진 폐열 활용으로 탄소중립 달성

- 수소, 풍력, 태양광,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은 성숙도가 높지 않아 현실적으로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합하지 않음.
- 고온(600℃ 이상) 및 중온(200~600℃) 폐열은 회수 방법이 어렵지 않으며 회수 이후 활용도 쉽기 때문에 이미 많은 산업체에서 회수하고 있음.
- 열량만으로 본다면 버려지는 총 열량의 30% 이상이 저온폐열 구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적용된다면 인류의 온실가스 배출이 30% 이상 감축할 수 있음.
- 산업체 기준 200℃ 미만 저온폐열은 민간에서는 90℃면 필요한 급탕온도(30~40℃)보다 훨씬 높아 유럽에서는 4세대 지역난방 시스템에 저온폐열을 활용한 냉난방 공급 방식을 도입함.
- 또한, 우리나라 역시 열병합발전에 저온폐열 인프라를 구축한다면 전력생성 시 발생하는 폐열을 활용해 냉난방을 공급할 수 있어 에너지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.

3) 한국경제

4) 에너지신문

1. 국내 주요 단신

■ 분산에너지사업, 5가지 향후 과제 검토 필요(에너지플랫폼뉴스, 2023.8.11.)⁵⁾

▶ 분산에너지에 대한 세부적 분류 필요

-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‘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의 의의와 향후 과제’라는 현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특별법 제정 이후 쟁점사항 등 5가지 향후 과제를 제시함.
- 입법조사처는 분산에너지 또는 분산형 전원의 정의로 인해 집단에너지사업이 전기사업 허가의 우회 경로가 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함.
 - 분산에너지법에서 정한 분산에너지는 '에너지를 사용하는 공간·지역 또는 인근지역에서 공급하거나 생산하는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에너지'임.
- 발전사업자는 열병합발전 건설 시 '전기사업법'에 근거한 발전사업 허가보다 '집단에너지사업법'에 의한 의제 처리로 발전사업 허가를 얻는 절차를 선호하게 될 수 있음.
- 전기분을 거쳐 인허가 받지 않는 발전설비가 전기를 판매할 목적으로 전력시장에 진입할 경우 전체 발전설비의 이용률 하락과 전력사업자나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수익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.
- 이외 분산에너지 편익 객관적 산정, 전력계통영향평가 적용 및 예외 대상 명확화, 지역별요금 산정 근거 공개 등 사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임.

■ 가스공 “지역주민 소통으로 LNG공급시설 안전 우려 해소”(경상매일신문, 2023.8.10.)⁶⁾

▶ 40년 역량 바탕으로 안전한 사업 진행 약속

- 한국가스공사는 대구 성서 열병합발전소에 천연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배관 건설 및 관리소 증설과 관련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지역주민 우려 해소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힘.
 - 대구 성서열병합발전소는 지난 1997년 최초 상업운전 후 현재까지 운영 중으로 설비 노후화 및 잦은 고장이 지속되어 발전연료를 기존 중유(벙커C유)에서 LNG로 전환하는 사업이 진행 중임.
 - 다만, 연료 직공급을 위한 한국가스공사의 중리 정압기지 설비 개체 공사에 대한 인근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지난 6월 기준 공정률은 66.8%임.
- 한국가스공사는 해당 배관 및 관리소 신·증설 사업은 대구 시민 편익과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임을 강조하며 40여년간 쌓아온 LNG 공급 역량을 바탕으로 안전한 사업 이행을 약속함.

5) 에너지플랫폼뉴스

6) 경상매일신문

